

제25회 아산서평모임  
2019년 3월 20일

‘로마인 플라톤’ 키케로  
김용민, 『정의와 행복을 위한 키케로의 철학』

박수인(경남대학교)

2018년 발간된 『정의와 행복을 위한 키케로의 철학』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저자가 집중적으로 진행해 온 키케로(106-43 B.C.E) 사상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집적한 역작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책은 접근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정치사상 학계에 그동안 키케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가 한 현실에서, “일반 독자나 연구 초심자들을 위해서 키케로 철학을 조망할 수 있는 안내서”(47-48)를 제공하려는 저자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구현한다. 철학적 논쟁이나 정치사상의 기본적 문제의식들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라면 얼마든지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게 서술되어 있다. 저자가 오랜 연구를 통해 획득한 전체적 조망의 관점이, 명쾌한 문장과 명확한 구조 속에 키케로 사상 지형도처럼 펼쳐진다. 마치 처음 가보는 장소를 그 곳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안내자를 따라 돌아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

서양 지성사에서 키케로의 가치나 위상을 파악하는 저자의 관점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은 책의 서두와 결론에서 저자가 인용하는 ‘로마인 플라톤’이라는 구래의 표현인 것 같다. 키케로는 스스로 플라톤주의자임을 자임했으며, 실제로 『국가』와 『법률』이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하며 플라톤을 모방하기도 하였다(28). 그러나 저자는 키케로가 단순히 플라톤을 답습하기 보다는 “‘로마인의 관점’이라는 주체적 관점에서 플라톤을 모방”했다고 평가하며(28), “키케로의 공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는 고대 정치철학을 마무리하면서, 고대 정치철학과 근대 정치철학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45). 따라서 저자는 그리스 고전 철학의 로마적 수용을 높이 평가하며 키케로의 사상사적 위상을 제고하는 스트라우스(Leo Strauss) 계열의 평가를 수용하는 기본적 기조 위에서, 그리스 고전 철학과의 연속성에 더욱 집중하는 니고스키(Walter Nicgorski 2012) 계열의 연구와 그리스 고전 철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유나 재산 등의 개념들에 더욱 집중하며 근대 서양정치철학에 끼친 영향을 더욱 강조하는 우드(Neal Wood 1988)나 래드퍼드(Robert Radford 2002) 계열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 책을 재미있게 읽는 한 가지 방법은 ‘로마인 플라톤’이라는 표현에 담긴 역사적, 사상적 아이러니 같은 것을 추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로마 공화정 말기와 아테네 민주정 쇠락기의 정치·경제 및 지적·문화적 맥락이 크

게 다르기 때문에, ‘로마인 플라톤’은 과연 로마적인 동시에 얼마나 플라톤적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이다.

이 책은 키케로의 사상을 정치철학(1부), 헬레니즘 철학(논리학과 자연학)(2부), 그리고 윤리학(3부)이라는 세 분야로 크게 나누어 조망한다. 플라톤과는 대별되는 ‘로마인’ 키케로의 특수성은 이 세 분야 모두에서 잘 드러난다. 저자의 논의에서 드러나는 키케로의 로마적 특성을 철학, 윤리학, 정치철학의 순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철학의 영역에서 키케로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판정이나 선언을 유보한 채로, 기존의 학파들 간의 논쟁을 되짚으며 각각의 입장을 “찬성과 반대라는 양쪽 측면에서”(165) 모두 조망하는 ‘비판 철학’의 역할에 만족하는 신아카데미학파의 입장을 견지한다. 이 책의 2부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학파, 구아카데미학파 등의 철학적 입장을 각각 지지하고 논박하는 인물들을 차례로 등장시키는 키케로의 철학적 대화편들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찬찬히 키케로의 철학적 논의를 추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키케로에 대한 저자의 평가에 대해 독자를 설득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키케로는 실천적으로는 자신의, 그리고 자신의 시대의 “필요에 따라”(165) 가장 그럴 법한 결론을 채택하면서, 철학적 근본 문제에 대한 판단은 독자에게 남겨 놓는 식으로 철학적으로는 회의주의자, 실천적으로는 절충주의자의 면모를 보이는데, 키케로의 실천적 절충주의가 무원칙하기보다는 오히려 철학적 탐구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인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키케로의 이러한 태도는 플라톤의 저서들에서 종종 보이는 철학적 근본 문제에 대한 설득의 절박함과 매우 다름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헬레니즘 시기에 전개된 철학의 ‘합리주의적’ 체계화가 오히려 이 시대의 지식에서 플라톤 철학에 아직 존재하던 개인적이고 비이성적인 ‘깨달음’의 무게를 덜어낸 영향으로 보인다. 따라서 철학을 유유자적하게 관조할 뿐,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실천적 판단에 대한 절대적 승인을 찾지 않는 키케로의 태도가 상당히 ‘로마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부에서 다루는 윤리학의 영역에서 키케로의 태도는 더욱 더 헬레니즘적이고 로마적이다. 플라톤에서는 매우 긴박하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여전히, 윤리의 문제는 정치체제나 사회제도 개혁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키케로에게 윤리학은 개인적 슬픔이나 과도한 욕망 같은 ‘병’을 제거하는 ‘영혼 치료’의 문제로 가장 절박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키케로가 윤리학의 영역에서 소요학파나 아카데미 학파보다 스토아학파에 더욱 동조하는 태도를 보임을 설명한다. 그런데 스토아적 윤리에 대한 키케로의 동조는 윤리적 문제를 개인의 것, 사적인 것으로 만드는 키케로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스토아 학파의 윤리는 외부적인 재화(goods)인 건강이나 재물의 중요성을 거부하고, 덕은 오로지 영혼의 성취일 뿐이라고 강조하는데, 이미 풍요로운 재산과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 로마 엘리트들에게 스토아 학파의 윤리는 그리스 고전철학에 남아 있는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문

제의식의 부담감을 털어내게 하는 중요한 지적인 경로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정치의 영역을 감성적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누스바움(Martha Nussbaum 1994)의 시도를 인용하며, 키케로 윤리학이 노정하는 “개인적인 성격”을 긍정적으로 승인한다(308). “개인적 행복을 위해서 맞춤형 처방을 제시하는” 키케로의 성취 역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맥락에서 정치적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308). 서평자도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전제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태도가 이미 플라톤의 정치철학과 윤리학으로부터의 심대한 단절을 요구하지 않는가하는 논평을 보충하고 싶다.

윤리학에서 드러나는 이 같은 개인주의적 태도는 사실 정치철학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키케로의 ‘로마적 관점’과 ‘독창성’에 더욱 짙게 묻어간다. 저자는 키케로가 고전 철학의 ‘도덕적 국가관’을 계승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사유재산의 보호와 자유의 신탁이라는 새로운 개념들을 통해 국가와 정의(justice)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키케로의 시도에 드러난 “도덕적·경제적·정치적 개인주의의 특성”(44)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철학과는 이질적인 ‘근대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는 우드(Wood 1988)의 연구를 인용한다. 키케로의 정치철학을 다루는 1부의 내용은 키케로가 고전적 도덕적 국가관과 로마적 개인주의적 국가관의 절충을 도모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키케로가 도모하는 이러한 절충은 키케로의 낙관적인 귀족주의적 관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키케로가 지향하는 혼합정이 인민이 귀족에게 자유를 신탁한다는 개념에 매개되어 있으므로,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보장보다는 “귀족의 도덕성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약점”(69)을 노정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자연적 정의’ 관념에 의지해 인간의 도덕적 평등 원칙을 도출하려는 키케로의 시도는 그 논리적 연결고리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75). 또한 실천적으로 “키케로는 도덕적 평등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 평등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79). 결국 “조화와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키케로식 절충이 오늘날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정치적 사유에 “인민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는 저자의 진단(82)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키케로의 개인주의에 비추어진 ‘개인’은 결국 공화정 말기 로마 엘리트의 관점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 같다.